

기호와 추론*

— 퍼스의 가추법을 중심으로

김 성 도

1. 들어가기

퍼스의 사상은 체계적이고 범주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가설적이고 실험적인 본질에 가깝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사유 체계의 기저에 흐르는 파오주의에 기인할 것이다. 그의 사상이 일정한 체계와 구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퍼스의 사상적 건축물에 입성하는 문은 여러 가지 길이 가능하며 지름길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퍼스의 '길'은 이를테면 하나의 미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독자는 아직도 주석가의 입장에서 그의 사유의 미로를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의 철학 체계를 감싸는 모순과 오해를 풀 여지도 없다. 이 논문에서 퍼스 사상의 복잡성과 깊이를 부각시킨다는 것은 물론 논의의 일이지니와, 퍼스학의 기본 윤곽은 미국 철학사와 기호학 전공자들에 의해 점증적으로 새겨지고 있다.

도대체 퍼스는 누구인가? 갈리가 퍼스에게 부여한 프래그머티즘의

* 이 글은 1995~1996년도 학술진흥재단 신진 교수 연구 과제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설립자라는 칭호는 틀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¹⁾ 그의 역동적이며 강력한 사상의 다층적 면을 말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더구나 퍼스가 당시의 통속적 실용주의와 자신이 창안한 프래그머티시즘 *pragmatism* 사이의 거리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 미국 사상사의 최고봉의 자리를 점하는 철저하게 고독했던 이 독보적인 사상가의 지성사를 표상할 수 있는 유일한 칭호가 가능할까? 그는 당시 최고의 과학철학자와 형이상학자였으며, 심리학·수학·천문학·범죄학·이집트학에 관심을 가졌고, 기호학의 이론을 집대성한 전형적인 백과사전적 스타일의 소유자였다.²⁾ 물론 그는 당시 “가장 독창적인 논리학자였다.”³⁾

그런데, 퍼스에 관한 30여 권 정도의 기존 연구서들의 목차와 연구 영역을 비교해가면서 필자는 그의 사상의 질서와 서열을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해석들의 이질성 앞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어떤 이는 인식론을, 또 다른 이는 그의 진화론적 형이상학을, 또 어떤 이는 그의 기호론을 퍼스 사상의 핵으로 삼고 있었다. 이 같은 해석상의 다원성의 주원인은, 필자의 견해론, 퍼스의 ‘에크리튀르’의 독특한 스타일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퍼스 사상의 본질은 어떤 궁극적 토대나 절대적 확실성을 용인하지 않는 과오주의와 불확정성 그리고 모호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요컨대 퍼스 사상은, 프랑스의 소장 퍼스 연구자인 티에르슬랭이 지적했듯이,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모험적 논리”이

1) Gallie, *Peirce and Pragmatism*, New York: Dover, 1966, p. 13.

2) 퍼스의 주요 지적 이정표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조할 것. P. Weiss, “Charles Sanders Peirce,” in *Dictionnary of American Biography*, vol. XIV, New York: Scribners, 1934; J. Brendt, *Charles Sanders Peirce, A Life*,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93.

3) P. Weiss, “Biography of Charles S. Peirce,” in Richard J. Bernstein ed., *Perspectives on Peirce*, Yale University Press, 1965, p. 12.

다.⁴⁾ 여기서 덧붙여지는 퍼스 읽기의 또 다른 어려움은 그의 저작물들의 미완결적 파편성과 그 방대함으로 설명된다.⁵⁾

그렇다면, 그의 사상의 건축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직까지 논자는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못했다. 다만 퍼스 사상의 구성을 받쳐주는 세 가지 주춧돌 또는 퍼스학의 공간을 여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세 개의 좌표를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첫번째 것은 실증주의적 경험주의로 규정되는 그의 프래그머티즘이다. 퍼스는 시종일관 철학을 하나의 실증과학 또는 실험 가능한 과학으로 규정했다. 두번째 토대는 그가 'phaneroscopy'라고 부른 범주들의 현상학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철학자의 제일차적 임무는 논리적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보편적 범주들을 규정하는 데 있다. 세번째 기초는 퍼스 사상의 기호학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주는 기호들로 충만되어 있다는 그의 선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며, 레이디 웰비 여사에게 보내는 서간문⁶⁾에 나타나는, 자신이 소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진행한 모든 연구 영역이 기호학이라는 틀 속에 포괄될 수 있다는 증언이 이 같은 해석을 보강해준다. 따라서 인지·사고·인간 그 자신이 그 본질에 있어서 기호이다. 모든 사고가 하나의 기호라는 생각은 우리의 삶이 사고들의 연쇄적 망으로 이루

4) Claudine Tiercelin, *La Pensée-signé*, Nîmes: Editions Jacqueline Chambon, 1993, p. 9.

5) 퍼스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은 엄청난 분량의 수고를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매각하였으며, 이 수고의 일부분만이 오늘날 퍼스 연구의 증거로 사용되는 Collected Papers와 Elements of Mathematics로 출판되었다. 현재 연대기 판본의 일부가 출판되었으며, 퍼스의 권위자 Max H. Fisch에 의해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중이다: *Writings of Charles S. Peirce*,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퍼스의 수고량은 대략 600페이지 분량의 단행본으로 약 104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퍼스의 수고 목록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Richard S. Robin, *Annotated Catalogue of the Papers of Charles S. Peirce*,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67.

6) Hardwick, C. S. (ed.), *Semiotics and Signifys: The Correspondance Between Charles S. Peirce and Victoria Lady Welby*,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77.

어져 있다는 생각과 연결된다. 잘라 말해 그것은 기호의 형이상학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들레달의 주석은 적절하다: “매번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의식 속에 기호로 쓰이는 표상을 현존케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현존하는 모든 것은 우리들 자신의 현상적 발현이다.”⁷⁾

2. 퍼스 기호학의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지적한 퍼스 사상의 건축물의 구성 요소는 퍼스 기호학의 토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점에서 그 세 가지 요소는 상호 보완적이며 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소쉬르에 시발점을 두고 엘름슬래우에서 그 이론적 정초를 다진 구조기호학에 전주어서 퍼스 기호학은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퍼스 기호학은 하나의 일반적 보편적 기호학이다. 이 말은 곧, 퍼스의 이론은 기호학의 모든 구성 부분들을 통괄하려는 보편성을 조준한다는 말로 통한다. 기호를 설명하는 데 있어 반드시 개입되는 세 가지 요소, 즉 시니피앙, 시니피에, 지시체를 어느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포섭하고 있다. 구조기호학에서 지시체를 배제한 것과 소쉬르 기호학에서 파를을 일차적 연구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퍼스의 기호학은 전반적이며 전면적이다. 따라서 퍼스 기호학의 존재론적 대상은 모든 의미 생산 영역들이며, 특정 영역, 예컨대 구두 언어에 어떤 특권적 자리도 내주지 않는다.⁸⁾ 그가 『선집』(CP)에서 자신의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는 자료들과 예들은 미학적·윤리학적·논리학적 본질에 속하는 것들이다. 다시 말해, 정서

7) G. Deledalle(ed.), *Charles S. Peirce, Ecrits sur le signe*, Paris: Seuil, 1978, p. 248.

8) Cf. Nicole Everaert-Desmedt, *Le Processus interprétatif*, Liège: Mardaga, 1990; Gérard, Deledalle, “Peirce ou Saussure,” *Semiosis* 1, pp. 7~13.

적·실천적·지적인 생명에 속하는 것들이다. 다양한 색채들, 장미 향기와 여자 향수, 중기 기관차의 소리, 음식의 맛, 탁월한 수학적 증명을 명상할 때 느끼는 감동이나, 명곡을 감상할 때의 감정 따위를 비롯해, 명제와 논증들도 중요한 기호들의 범주에 넣고 있다. 구조기호학이 언어학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 퍼스 기호학은 위에서 지적한 현상학적 성찰 속에 자리잡는다. 따라서 퍼스 기호학은 그 토대를 현상학적 형이상학적 차원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미 이론으로서의 틀을 벗어나 거대한 철학적 기획이라고 사료된다.

퍼스 기호학의 두번째 특징은—방법론적 양상에 속하는 것으로서—철저한 삼원론적 모델로서 설명된다. 기호학의 연구 목표인 의미 작용은 관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의미를 점증적 관계화와 분절로 본 것은 구조기호학과 흡사하나, 퍼스 기호학은 소쉬르의 이원주의와 대조를 이룬다. 엘름슬레우, 바르트, 그레마스 등 구조기호학이 한결같이 이원적 관계화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반대로 퍼스 기호학에서 모든 관계는 삼항적으로 맺어진다. 그가 명명한 ‘세미오시스’ 즉 기호 작용 또는 기호 현상은 삼원적 과정으로서, 하나의 표상체·해석체·대상체를 관계화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해석체 개념이다. 해석체는 기호를 해석하는 인격적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호로서 다른 기호를 창발시키는 요인이며, 해석자에게 효과를 규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하나의 기호는 그것의 본질로 인해 하나의 해석체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해석체는 기호 작용의 결과로서 해석자에게 산출되는 효과이다. 퍼스 기호학의 이 같은 삼원적 개념성은 퍼스 철학의 틀 속에서 다시 꼼꼼하게 연구되어야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퍼스는 분명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모종의 경도된 친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퍼스 기호학의 세번째 토대는 프래그머티시즘에 근거를 둔다.⁹⁾ 논자는 이것을 일러 화용기호학이라 칭한 바 있다. 실제적으로 퍼스의 기호학은 현대 화용론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먼저 퍼스 기호학은 '컨텍스트'에서의 기호학이다. 모든 언표는 하나의 문맥 속에서 화자들이 지시하려 하는 바를 식별케 해주는 화용적 지표들을 포함한다. 주지하다시피, 구조기호학에서 화용적 차원에 속하는 모든 것은 파롤의 영역으로 내몰려졌고, 그 결과 화용론의 문제는 주변부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기호의 생산 과정과 수용 양상의 문맥을 고려하는 퍼스 기호학은 작용과 생성의 기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퍼스 기호학은 기호의 정태적 구조보다는 역동적 작용에 초점을 두게 된다. 퍼스가 제시한 저 유명한 화용론적 준칙에 따르면, 어떤 가설이나 관념의 의미는 바로 그것들이 내포하는 실제적 효과들 속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퍼스의 화용주의는 순수한 의미론적 핵이란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완결된 의미는 이 핵을 수시로 범람하며, 따라서 의미론과 화용론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퍼스의 시각에서 언어는 그것 자체로 닫혀질 수 없고, 무한하게 그것의 실제적 파급 결과들의 세계로 열려진다. 발화자들과 해석자들에 대한 참작은, 언술 작용의 상황들에 대한 화용론적 고려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나간다. 퍼스에게서 하나의 표현 의미는 그것의 사용과 확인 조건들과 불가분이다. 퍼스 화용론의 대상은 행동하는 언어, 또는 언어의 작용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퍼스는 현대 화용론에서 말하는 수행적 언표들의 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단언은 지시적 또는 보여주는 기능을 갖는다"는 퍼스의 진술은 지표가 명제 구조의 통합적 부분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소비레의 다음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의미 작용과 파악 가능한 실제적 효과들을 동일시하

9) Cf. Cl. Tiercelin, *C. S. Peirce et le pragmatisme*, PUF, 1993.

10) Peirce의 초기 논문(1876), "Comment rendre nos idées claires"를 참조할 것.

면서, 퍼스의 프래그머티즘은 담화 행위 이론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으며, 이 이론은 화행 이론에서 설 Searl이 설정한 관계보다 훨씬 더 밀접한 언어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었다.”¹¹⁾

3. 기호 이론의 두 가지 관점

서구 기호학사에서 온축된 기호 이론과 모델들을 검토해보면 기호의 본질을 보는 두 가지 원근법이 병존해왔음을 깨닫는다. 하나는 기호가 부재하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대신하거나 연상시킨다는 표상적·대체적 관점이며 — 데리다의 표현을 빌리면, 기호는 부재하는 것이 도래할 때까지만 그 가치가 있는 시한부 생명이며 따라서 기생적인 본질에 속한다 — 다른 하나는 기호는 지각 가능한 대상과 사태로부터, 지각되지 않는 대상이나 사건의 추론을 가능케 하는 추론적 본질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양자는 각각 지시 작용 *référence* 과 추론 작용 *inférence* 이란 표현으로 응축될 수 있다.

지시 작용의 기호론은 그것이 언어가 참을 말할 수 있다는 조건들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서구 형이상학에서 근본적이다. 지시 작용의 문제는 『크라틸루스』로부터 푸코의 『말과 사물』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모든 사상가들을 괴롭힌 문제이다. 필자가 『기호의 고고학』에서 설명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그 시원을 찾는 기호의 삼원적 모델은 현대 기호학에서 재생된다. 기표에서 개념으로 그리고 개념에서 다시 지시물로 향하는 이중적 운동이 그 핵을 이룬다. 물론 서구 언어 사상사에서 초점은 언제나 두번째 운동에 모아졌다. 그러나 의미 작용은 지시 작용 즉 외연적 설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외연적 이론은 형식 언어에 적

11) C. Chauviré, "Le 'pragmatic turn' de ch. S. Peirce," in *Critique*, 1984, N. 449, p. 111.

합할지는 몰라도, 복잡한 문화적 현상과 의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더구나 지시 작용은 주체에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는다. 지시 작용이 하나의 모델이나 가능 세계에서 규정된다해도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진리 조건적 의미론에서 인지 의미론으로의 자리 바꿈도 기호의 역동적 작용을 받쳐주는 추론적 작동을 파악하지 못한다.

지시 작용을 설정하는 정신적 조작은 추론 작용이라 명명할 수 있는 지표적 다시 돌려보내기를 설정하는 조작과 구분된다. 의미에 대한 두 가지 근본적인 개념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¹²⁾ 지시 작용은 서구 사상의 수천 년 간의 전통에서 온축된 철학적 기호학의 대상인 반면, 추론 작용은 의학적 증상이나 자연 현상의 해독에 그 뿌리를 둔 증상학 *séméiologie*에 속한다. 여러 증상들을 연구하면서 의학은 지표적 패러다임을 전개 발전시켰던 것이다.

지시 작용은 두 개의 현실 차원 — 개념과 대상들 — 관계를 설정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지시 작용은 단일 분야나 과학에 귀속될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사안이다. 반대로 추론 작용은 동일한 현실 차원에 속하는 두 개의 단위들을 연결짓는다. 지표에 대한 소박실재론적 개념성에 따르면 두 개의 대상이며 ‘멘탈리스트’의 관점에서는 두 개의 개념들이다.

하지만 관계에 관여하는 사항들이 동일한 위상을 갖는 것은 아니다. 추론 작용에서 하나의 관계항은 전건이며, 다른 하나는 후건이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또는 인과율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전자는 후자의 기호라고 말할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구름은 비의 기호가 된다. 이 같은 기호 정의는 널리 유포되어 있고, 기호의 체계 개념과 독립하여 확장된다. 일반적으로 추론 작용과 관련하여, 서구의 기호학 전통에서는 세계의 해석과 텍스트의 해석을 차별화하지 않는다.¹³⁾ 지표들은 자연적 기호들로서 즉 코드화된

12) F. Rastier, *Sémantique et recherches cognitives*, PUF, 1991, pp. 84~88.

13) 예를 들어 성 어거스틴이 언급하는 자연 기호들은 성서의 해석적 기호들을 다루

제도의 기호들이 아닌 것으로 고려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아보는 인지 행위에 대해서 판별적 기호들을 통해 언급한다. 즉 그는 생득적인 기호들과 후천적 기호들을 구분한다: “발견의 종류에 관해서 말한다면, 맨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가장 비예술적인 것으로서 시인들의 창의를 부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그것은 표지에 의한 발견이다. 이들 표지 가운데 일부는, 「땅속에서 태어난 자들이 지니고 있는 창끝」이나 카르키노스의 『튀에스테스』에 나오는 「별」과 같이 선천적인 것이고, 다른 일부는 후천적인 것인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상흔과 같이 신체에 있는 표지이고, 어떤 것은 목걸이나 [……] 처럼 외부적인 것이다.”¹⁴⁾ 이 인용문은 목걸이의 경우가 지시하는 환유와 상흔이 말하는 제유가 추론적 패러다임과 동일한 명목에 속함을 상기시켜준다. 아울러 이 구절은 곧 서술적 지성이 본질적으로 추론들의 작동임을 암시한다. 대상들을 묘상하는 개념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사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명제들에 관심을 갖는 상위의 차원에서, 추론 작용은 여러 함의들을 구성한다.

퍼스의 기호 이론은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창성이 발휘된다. 요컨대 그가 기호를 다른 무엇을 지시하는 그 무엇으로 정의했을 때는 전자의 관점을 대변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호가 세계에 대한 지식의 성장을 제공하는 근원으로 파악한 경우는 바로 두번째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호의 추론적 본질은 그가 제시한 독특한 추론 형식인 가추법에서 잘 나타난다. 가추법은 퍼스의 이론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 동시에 그 온전한 이해가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다. 더구나 논자의 문헌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학계에서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 논문은

는 장인 “De Signis interpretandis in scriptura” (*De doctrina christiana*, II, I, 2)에서 제시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토도로프도 상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14) 『시학』, 1454, b, 20~25. 천병희, 문예출판사, pp. 91~92.

기호학계는 물론 논리학자들이나 분석철학계에서조차도 부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추법의 문제는 퍼스 사상을 해석하는 열쇠들 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그의 프래그머티즘과 기호 이론의 핵심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퍼스학의 최고의 스칼라십을 갖고 있던 막스 피쉬 Max Fisch는 퍼스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서설은 바로 1907년 퍼스가 'Guessing'¹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가추법에 대한 퍼스의 연구라고 말한 바 있다.¹⁶⁾

이 글은 가추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산발적으로 제시된 퍼스의 가추법 개념과 기존의 이론적 주석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가추법 개념의 문제들을 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이 문제는 기호론과 인식론의 교차점에 놓이는 복잡한 문제로서 보다 심도 있는 과학철학적 지평 속에서 조명되어야 해명될 수 있는 다차원적 개념이라는 점을 첨언한다(가추법에 대한 세계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는 한 가지 지표는 이 문제에 대한 정보 탐구의 역할로서 인터넷에 설치된 홈페이지이다. WIRTH@INFORMATIK.UNI_FRANKFURT.DE).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기호학자의 관점에서 기호와 추론의 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문제 설정의 한계가 그어졌다.

3. 논리학과 기호학의 관계

퍼스 자신이 가장 선호한 직함은 논리학자였다. 그가 최초로 쓴 미

15) 시비역은 다음과 같은 흥미진진한 책에서 그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 Thomas A. Sebeok and Jean Umiker-Sebeok, *You know My Method: A juxtaposition of Charles S. Peirce and Sherlock Holmes*, Bloomington, int.: Gaslight Publications, 1980. 한국어 번역본,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김주환 역, 인간사랑, 1995.

16) "The Relevance of Charles Peirce," *The Monist*, 1980, 7, vol. 63, n. 3.

간행 논문("Memoranda Concerning the Aristotelian Syllogism," 1866)도 그의 논리학에 대한 열정을 증명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퍼스가 논리학을 기호학의 또 다른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게 있어서 논리학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탐구 *human inquiry*의 방식에 초점을 둔다. 퍼스는 논리학을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제한된 의미에서 논리학은 진리에 도달하려 하는 필연적 조건들에 관한 과학이다(1.444). 이 같은 의미에서 규정된 과학을 그는 비판논리학 *critical logic* 또는 비판학 *critic*이라고 명명했다. 이 같은 비판적 논리학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설명적 또는 연역적 추론과, 증폭적 또는 종합적 추론이 그것이다. 퍼스가 말하는 논리학의 확장된 의미에서, 논리학은 단지 사고의 필연적 법칙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사물들을 기호로 만드는 조건들을 탐구한다. 그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하나의 일반 기호학이다(1.444).

이 논문에서 다루는 가추법은 바로 증폭적 추론에 속하는 추론 양식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퍼스 주석가들이 내놓는 해석들에 따르면 가추법은 논리학의 영역으로 국한된다. 논자는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다시 말해 가추법은 기호학의 영역을 포괄하는 핵심적 이론소라는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퍼스 사상의 발전 속에서 논리학과 기호학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필요로 할 것이다.

논리학이 단순히 논증들에 대한 비판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청년 퍼스의 초기 논문들 속에서 분명히 표출되었다(이를테면, 그의 초기 논문 "On a New List of Categories," 1867). 이때부터 퍼스는 우주의 합리성의 표현을 가능케 하는 상징성 일반에 관심을 가졌다: "모든 사고와 탐구의 씨줄과 날실은 상징들이며, 아울러 사고와 과학의 생명은 상징들 속에 스며 있는 생명이다; 그 결과 하나의 좋은 사고를 위해서는 좋은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좋은 언어는 좋은 사고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2.220).

따라서 논리학자의 대상은 “기호학의 모든 필연적 원칙들”(4.9)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논리학의 외연이 새로운 각도에서 한계가 없어지면, 엄청난 사실들의 복잡한 골격이 구상화된다. 다시 말해 기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기호학, 다시 말해 가능한 세미오시스의 근본적인 다양성들의 중요한 본질에 대한 독트린이라고 부른 것 속에서 길을 트고 그것을 열어놓는 임무에 있어서 내 자신은 선구자, 또는 처녀림의 개척자이다. 나는 이 마당이 너무 광대하며, 처음 이 일에 매달린 사람에게 그 작업이 너무 벅찬 것임을 깨닫는다”(5.488).

퍼스의 기호 이론은 섬세하고도 심오하다. 물론 이것은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퍼스의 궁극적 대상이었던 탐구 이론의 조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논리학과 기호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확장된 논리학의 하위 구분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변 문법 또는 형식 문법이나, 순수 문법(신조어를 사용해서 그는 *stecheotic*, *stoicheology*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비판 논리학(영어로 *obsistent logic*, *critical logic*) 그리고 세번째로 사변수사학이나 형식수사학, 순수수사학(또 다른 신조어로 *methodeutic*이나 *transuational logic*이란 술어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퍼스의 글에서는 이 세 가지 분야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명도 없다. 대략적으로 말한다면, 사변 문법은 기호들의 본질과 분류를 조준한다. 요컨대 기호 그 자체를 연구한다는 것은 기호들의 의미를 지배하는 형식적 조건들을 규정하는 일이다(1.191, 2.93). 달리 말해 그것은 일차적이다. 다른 한편 비판논리학 또는 인식론은 기호의 특별한 변이형인 논증들을 분류하고 그 구조를 밝혀내고 평가한다. 그것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기호들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이차적이다. 세번째 분야인 방법학 *methodeutic*은 과학적 탐구와 진리의 설명 및 적용에서 추구되어야 할 방법들을 연구한다(1.191). 퍼스에게서 사변수사학은 우주론

과 과학적 형이상학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4. 추론의 중추적 역할

이제 퍼스의 논리학적 기구에서 기추법이라는 중추적 개념을 접하기 전에 퍼스 사상에서 추론 일반의 위상을 포착하는 일이 관건일 것이다. 퍼스의 지성사에서 칸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¹⁷⁾ 칸트로부터 퍼스는 모든 사고는 개념을 통해서, 즉 판단을 통해서 생각된다는 사실을 터득한다. 개념이 작동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판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판단은 다른 개념들과 직관적 소여들의 포섭이다. 이 점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제1권 1장에서 명시화된다: “우리는 오성의 모든 작용을 판단들로 환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오성은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¹⁸⁾

그러나 퍼스는 칸트를 답습하지 않고, 그 이론을 나름대로 혁신시킨다. 먼저 판단이란 개념의 모호성과 개념적 불충분성을 직시한다. 무엇보다 하나의 판단은 그것 자체로 충분치 않다. 판단은 일정한 토대와 정당화를 필요로 하거니와 그의 초기 저작부터 퍼스는 하나의 판단은 다른 판단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토대를 갖춘 모든 판단은 추론의 결과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모든 오성 활동은 판단이 아닌 추론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퍼스의 새로운 생각이었다.¹⁹⁾

17)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G. Deledalle, *Cb. S. Petrice, Phénoménologie et sémioticie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Company, 1987.

18) 『순수이성 비판』, 崔載喜 역, 박영사, 1977, p. 107.

19)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을 판단이 아닌 추론으로 귀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칸트 자신이 퍼스에게 불러준 영감일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분석론에서 칸트는 사고가 본질적으로 중개화임을 암시한다. 칸트가 여기서 말하는 중개화란 퍼스가 말하는 추론에 다름아니다. 칸트의 논리학이 퍼스의 기호 이론 및 논증 이론에 미

이 같은 생각은 퍼스의 초기 글에서 그 씨앗을 찾아볼 수 있다. 소 여들로부터 하나의 지식에 도달하는 모든 조작은 하나의 추론이다.²⁰⁾ 매우 조속하게 청년 퍼스는 인간의 지식이 연속적 과정으로 진화함을 단언함과 동시에 사고의 궁극적 결정적 출발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는다. 이 같은 생각은 삼원성의 우주를 지배하는 연속성의 독트린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시네시즘 *synechism* 이론 속에서 중요한 한 단계를 표시한다.²¹⁾ 퍼스는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출발점은 일차적 소여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라고 결론짓는다. 고립되거나 직접적 지식을 인정치 않는 이 같은 과정이 바로 추론 그 자체의 과정이다. 이것은 명시적인 반데카르트주의의 천명이다.

이 같은 추론 과정 속에서의 연속성의 원칙은 기호학적 과정을 지칭한다. 의식 속에 현전하는 모든 표상은 하나의 기호이다: “하나의 기호는 있는 바 그대로 세 개의 지시 작용을 갖는다: 첫번째 지시 작용에 따라 기호는, 기호를 해석하는 사고에 대해서 기호이다. 두번째 지시 작용은 이 사고에서 이 기호가 동등 가치를 갖는 대상에 대한 기호이다. 세번째 지시 작용은 그것의 대상과 관계를 맺어주는 일정한 관계나 성질 속에서의 기호이다”(5.283). 아울러 이 같은 사고 과정의 무한한 연속성은 시작도 끝도 없다.

비판논리학이 연구하는 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결론이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추론이다. 이런 종류의 논증들이 갖는 중요성은 그 결론이 전제에서 언표된 것을 증폭한다는 사실로 설명된다. 이 추론은 전제 명제가 결론 속에서 몇 가지 첨가적 사실

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Joseph Chenu, *Peirce Textes anticanthésiens*, Aubier, 1984, pp. 14~19.

20) Murphy, *The development of Peirce's Philosoph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1, p. 21.

21)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Rosa, A. M., *Le Concept de continuité chez C. S. Peirce: les mathématiques et la logique de la continuité*, thèse, Paris: EHESS, 1992.

들을 단언하는 토대로 사용된다. 하지만 그것은 선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어떤 보장도 제공하지 않는다. 퍼스에 따르면 모든 경험과학들은 그 같은 합리적 추론을 사용한다. 그것은 지식의 성장을 가져오는 유일한 추론이다. 인간의 탐구에 대한 연구가 이 같은 증폭적 또는 종합적 추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명하다. 가추법은 귀납법과 더불어 이 같은 특별한 추론에 속한다. 그러나 퍼스의 다른 개념들이 그런 것처럼 가추법에 관한 설명도 그의 글 속에서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통일적 수미일관성을 재구성하는 일은 까다롭기 짝이 없다.

세미오시스의 현상학적 관점, 즉 기호로부터 출발한 추론의 관점에서 세 가지 유형을 구별해볼 수 있다. 가추법은 일차적이며, 귀납법은 이차적이며, 연역법은 삼차적이다. 논리학자 퍼스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논증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추법은 하나의 설명적 가설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도입하는 유일한 논리적 조작이다: 왜냐하면 귀납법은 하나의 가치를 규정할 뿐이며, 연역법은 어떤 것이 반드시 어때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귀납법은 어떤 것이 실재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추법은 어떤 것이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추법의 규명은 그것의 암시로부터 연역법이 하나의 예측을 도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며, 그 예측은 귀납법을 통해 시험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현상들로부터 무엇인가를 터득하거나 이해한다면 이것은 바로 가추법에 의한 것이라는 데 있다”(5.171).

5. 기호의 추론성과 해석성

앞서 언급했듯이, 기호의 원근법에는 표상적 또는 대체적 시각과 기호의 추론적 본질을 강조하는 관점이 융합되어 있다. 첫번째 시각은 야콥슨이 말하는 ‘다시 돌려보내기’의 관계로 또는 퍼스가 사용하

는 지시 관계 *standing for*로 설명되고 두번째 시각은 스토아 학파의 기호학에서 그 효시를 찾을 수 있으며, 퍼스에게서 그 윤곽을 잡는다. 물론 퍼스는 이 둘의 시각을 종합하고 있다: “하나의 기호 또는 표상체는 누군가에게 일정한 관계나 어떤 명목 아래 다른 무엇을 대신하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호소한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정신 속에서 동등 가치를 갖는 하나의 기호나 또는 더 발달된 기호를 만들어낸다” (2.228).

기호는 총칭적으로 스콜라적 기호 정의 ‘어떤 것을 지시하는 그 어떤 것 *aliquid qui stat pro aliquo*’으로 규정된다. 이 정의에서 *aliquid*는 하나의 구체적 표현이거나 가능한 구체적 표현들의 부류이다. 만약 우리가 이 정의를 소쉬르의 기호학적 기구에 옮겨놓는다면 시니피에는 가능 세계 속에서의 하나의 다시 돌려보내기를 특징지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시니피에의 모호함이 상존하며 이것은 이 무엇인가의 개별화를 어렵게 만든다. 이 지시체의 인지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이런 이유에서 에코는 하나의 표현의 시니피에를 “해석이 가능한 모든 것”으로 보며 “그 결과 하나의 표현과 그것의 가능한 다시 돌려보내기 사이의 상관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동등 가치의 형식이 아닌 추론의 형식에서 윤곽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²²⁾

요컨대 하나의 기호는 단지 다른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해석 가능성의 기준은 세미오시스의 우주를 포괄하기 위해 결정적이다. 이 기준은 추론적 모델 $p > q$ 에 기초한 자연 기호들의 고전적 개념에 대해서 타당하지만 동등 가치 모델 $p \equiv q$ 에 토대를 두는 언어 기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어떤 언어학적 정의도 해석적 과정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에코의 개념으로 풀어 말하면 그것은 사전의 영역이 아니라 백과사

22) U. Eco, *Sémiotique et philosophie du langage*, PUF, 1968, p. 65.

전의 영역이다. 백과사전은 하나의 기호학적 공식이다. 즉 그것은 “모든 해석들이 저장된 총합이다.” 그것이 하나의 공식인 이유는 “그 총체성에 있어서 실제로 기술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에코는 백과사전을 문화적 약호들의 인지력을 구비한 전반적 능력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백과사전의 소유 수준들을 인지할 것을 제안한다.²³⁾

어쨌든 위에서 말한 해석은 퍼스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퍼스가 모든 해석체는 직접적 대상체를 재해석하고 하나의 역동적 대상체를 창작하기 위해 그 내포를 확장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포착할 때 비로소 해석은 기호 작용의 근간을 이룬다. 기호의 추론성과 해석성은 바로 가추법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6. 추론으로서의 가추법

증폭적 추론의 두번째 유형에 속하는 가추법은, 새로운 사실 또는 놀라운 사실들로부터 현재의 이론의 틀에서 설명될 수 없는 사실들로부터 출발해 이 미지의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 가는 추론으로서 정의된다. 퍼스는 가추법의 기본 도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된다.

그런데 A가 사실이라면 C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A가 사실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5.189).

이를 다시 부연 설명해보자. 먼저 지금까지의 우리의 지식의 한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한다. 다시 말하면 이 사실은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타성이나 편견에 젖어 있는 우리들을 놀라

23) 백과사전 개념에 대해서는, Eco, 앞의 책, pp. 63~137.

게 한다. 과학의 경우는 기존의 이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정식화할 수 있다. 우리의 합리적 추론은 일차성에 뿌리를 둔다. 풀어 말해 정신 속에 본능적으로 도래하는 가설은 그 가설에 의해서 암시를 받는다. 실제로 목격된 사실과, 설정된 가설의 적용으로부터 결과되는 파급 결과들 사이에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퍼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가추법적 암시는 우리에게 하나의 섬광처럼 다가온다. 그것은 비록 지극히 과오적인 것이지만 엄연히 하나의 통찰 *insight* 행위이다. 가설의 상이한 요소들이 이미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도 함께 놓으려고 꿈도 꾸지 않았던 요소들을 함께 놓으려는 생각을 새로운 암시가 우리의 명상 앞에서 하나의 섬광으로만 들어버린다”(CP, 5, 181).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연역법에 의해서 이 가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 가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파급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세운 가설과 일치하는 하나의 태도를 채택할 수 있다. 과학적 탐구에서 문제의 핵심은 최고의 엄밀성을 구비하여, 가설을 반증할 수 있게 해주는 시험들이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일일 것이다. 어떤 가설이 그릇된 것임을 판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험만으로 족하지만, 그 가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일련의 경험들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인 네번째 단계에서 일종의 귀납법, 다시 말해 일정 수의 실증적 사실들에 기초한 일반화를 통해 우리는 그 결과들이 정반대의 경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가설을 확인시켜준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퍼스는 가추법이란 신조어 이외에도, 추정법·귀환법·가설법이란 술어들을 산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가추법은 이론과 개념 파악

이 파생되는 모든 조작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술어이다(5.590). 퍼스는 바로 이 과정의 추론적 본질을 포착했던 것이다. 퍼스는 이 같은 추론 가능성의 명분을, 가설이 채택됨으로써 일정한 개연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데서 찾고 있다(2.511). 그에게 있어 하나의 추론은 최소한 하나의 논향으로부터 결론에 이르는 타당한 과정이다. 이 과정의 타당성은 그가 유도 원칙 *leading principle*이라고 부른 형식적 원칙에 기초한다. 연역법의 경우 이 유도 원칙은 상대적으로 인지하기가 쉽다. 순전히 논리적인 원칙의 경우 주어진 논증의 유형에서 토대로 쓰이는 것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되는 조건적 명제, 즉 모두스 포넨스 *Modus ponens*이다. $(p, (p \leftarrow q)) \leftarrow q$. 연역법의 경우 일단 전제 조건과 유도 원칙이 제기되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부과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추법의 경우, 전제 명제가 제시된다 해도 어떤 논리적인 필연적 조건도 하나의 결론을 부과할 수 없다. 단지 이 가설로부터 일정한 특수한 사실을 귀환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퍼스는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삼단 논법의 차원에서 가추법을 다른 두 가지 추론 유형들과 비교하고 있다.

연역법은 먼저 일반적 규칙을 정식화하고 두번째 소전제가 특별한 경우를 제시한다. 그리고 결론은 일반적 규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것을 표현한다. 귀납법은 일정 수의 특수한 경우들과 하나의 결과로부터 일반적 규칙을 표명한다. 가추법은 하나의 결과와 일반적 규칙으로부터 경우를 정식화한다. 이것은 논리적 보장이 없는 가설이다. 이 세 가지 논증 방식을 퍼스는 저 유명한 완두콩의 예로서 설명한다.

연역법.

규칙: 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완두콩은 하얗다.

경우: 이 완두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다.

결과: 이 완두콩들은 하얗다.

귀납법

경우: 이 완두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다.

결과: 이 완두콩들은 하얗다.

규칙: 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완두콩들은 하얗다.

가추법

결과: 이 완두콩들은 하얗다.

규칙: 이 가방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완두콩들은 하얗다.

경우: 이 완두콩들은 이 가방에서 나왔다. (CP, 2.623)

예들 들어 어떤 사람이 주방에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한줌의 완두콩이 있고, 그 옆에 완두콩이 든 가방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아울러 논자는 이 가방이 오직 하얀색 완두콩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다. 그렇게 되면 논자는 식탁 위에 있는 완두콩들이 바로 다름 아닌 그 가방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설은 하나의 결과, 다시 말해 식탁 위에 있는 하얀색 완두콩의 존재가, 하나의 일반적 규칙의 경우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그 특수한 경우를 설명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 과정을 퍼스는 위와 같이 풀어 설명한 것이다.

알다시피 하나의 연역법의 결론은 필연적이며 비과오적이다. 왜냐하면 결론이 이미 전제 명제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귀납법의 결론은 대략적이며, 실험에 기초한 점증을 요한다. 위에 제시한 퍼스의 예에서 그 가방 속의 모든 완두콩들이 모두 하얀색인지를 확인하려면 그 가방을 모두 비울 때까지 마지막 완두콩들을 끄집어내야 할 것이다. 반대로 가추법은, 그것이 비록 과오적이라 해도, 새로운 정보를 가져다준다. 가추법은 단지 정보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양태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처신

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화용적이다. 이에 대한 퍼스의 설명을 들어 보자.

“하나의 가추법은 그것이 특별한 경우에 또는 통상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실증적 확신 없이 하나의 일반적 예측을 형성하는 방법론으로서, 그것의 정당성은 오직 우리의 미래의 행동 양식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능한 희망에 있다”(2,270).

이 세 가지 논증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과학들을 예로 들어본다면, 수학적 추론은 물론 연역적이다. 그 추론은 가설을 제기하여 그로부터 일체의 필연적 파급 결과들을 연역하는 데 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경험과학은 귀납적이다. 그것은 여론 조사나 간단한 실험을 거쳐 무작위로 고른 표본에 대해서 진실인 것이 일정 부류에 대해서 참이라고 간주한다. 연역법과 귀납법의 경우는 이 글에서 새삼 논의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미 과학철학, 논리학, 인식론자들이 퍼스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다. 그런데 퍼스가 제시한 가추법에 대해서는 퍼스 이전에 어떤 서구의 논리학자도(유일한 예외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요성은커녕 존재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보겠지만, 가추법은 알고 보면 과학적 발견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거의 매순간 실천하는 추론 형식으로서, 포퍼의 가설적-연역적 수순과 유사점을 보여준다.²⁴⁾

24)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Chauviré, “Peirce, Popper et l’abduction: pour en finir avec l’idée d’une logique de la découverte,” *Revue philosophique*, N. 171, 1981, pp. 441~59.

7. 가추법의 정당성

가추법의 경우, 우리의 정신은 연역법에 견주어서 동일한 제약에 종속되지 않는다. 가설의 발견에 도달할 수 있는 정의 가능한 방법론은 없다. 가추법은 하나의 추측이나 창조적 상상력일 뿐이다. 퍼스의 말을 빌린다면, “가추법은 결국 짐작해보기 *guessing* 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퍼스는 이 같은 짐작하기를 하나의 추론으로 고려해야 하는 역설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 가설의 창안을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다시 말해 순전히 심리적인 작용으로 간주한다면, 이 역설은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은 순전히 우발적이며 개인적인 것이어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퍼스는 이 같은 ‘짐작하기’가 이성에 토대를 둔 수순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추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요컨대 퍼스의 추정 활동은 합리성의 토대를 구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설명해야 할 사실들이 현재의 지식 상태에 있어서 생소하고, 터무니없기 때문에, 하나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마음속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하나의 가설의 탐구가 명명백백하게 합리적인 수순으로 나타난다면, 그 같은 가설의 언표와 선택 역시 하나의 합리적 수순으로 판명될 것이다. 가추법은 단순히 도박이나 내기를 거는 무모한 행위가 아니며, 온당하게 규정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다시 말해 경우에 따라서 타당한 또는 부당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추론이다. 그것의 논리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추론인 것이다. 여기서 퍼스는 개연적 추론에 있어서 논증의 힘 *strength* 과 타당성 *validity* 을 구분하고 있다. 지극히 취약한 논증도 얼마든지 타당한 것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2,780).

바로 이 같은 타당성의 여부를 갈라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 조건으로부터 하나의 가설을 언표화하고 그 언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의 진정한 추론이나 아니면 예감, 육감, 이상한 느낌 따위의 단순한 개인 심리적 차원에 속하는 정신적 조작이나를 판가름할 수 있게 해준다. 퍼스는 모든 가추적 논증들은 취약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렇다면 가추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규명되는가? 달리 말해 논증의 힘을 배가할 수 있는 가설법이 제안한 성질들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성질들이란 가설법의 필연적이며 타당한 조건들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논증의 타당성은 규칙 또는 그것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방법론에 전주어서 정의된다. 퍼스는 모든 논증이나 추론이 일반적 방법론과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둔다: “그 논증이 구비하려고 하는 방법론은 진리를 산출할 수 있는 일정한 미덕을 갖는다. 논증이나 추론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따르려는 방법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2.779). 이 말은 곧 각각의 논증은 진리를 산출하는 일정한 방식에 상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 타당성은 주어진 논증과 방법론의 일반적 원칙과의 일치에 의해 규정된다.

퍼스 자신의 설명을 적어본다: “검증을 위한 하나의 가설의 추정적 채택의 타당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 가설은, 그것의 파급 결과가 실험에 의해 테스트될 수 있고, 관찰된 사실들이 그 가설로부터 필연적 결론으로서 도출될 수 있으며, 그 가설이 궁극적으로 진리의 발견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방법론에 따라 선별된다”(2.782).

이 인용문으로부터 쉬누는 가추법의 세 가지 조건을 이끌어내고 있다.²⁵⁾

첫째, 가추법은, 그에 상응하는 연역법이 타당할 때, 가설을 전제 조건으로 취하면서 얻어진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전제로부터 알려진 사실을 연역해낼 수 있다. 두번째, 하나의 가설의 선택은 우리를 진리에 더 가깝게 갖다놓으면서 가추법이 그 계약을 완수하는 것

25) Chenu, 앞에서 인용한 책, p. 28.

을 도와준다. 요컨대 가추법은 지식의 증식의 근원지이다. 셋째, 가설은 경험과 판결에 속해야 한다. 그것은 실험실의 논리이다. 이 점에서 가추법은 퍼스의 실증주의와도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퍼스 자신은 콩트의 실증주의가 지니는 편협성을 비난하지만 말이다.) 요컨대 가설의 경험주의는 이 가설의 각각의 파급 결과가 실험에 의해서 시험되어야 함을 뜻한다.

가추법의 힘은 우리의 동의를 생산하는 데 있다. 퍼스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논증에 포함된 공통 분모를 식별해낸다. 그것은 관찰이다. 퍼스에게서 관찰이란 우리들의 생명의 전개에 있어서 힘의 부과된 요소로서 정의된다. 관찰하는 행위 그것은 곧 우리 의식의 주된 힘이 라고 퍼스는 말한다. 이 점에 대해서 퍼스는 흥미로운 단락을 남기고 있다.

“관찰이란 무엇인가? 경험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명상하는 대상 속에 내재하는 미지의 힘에 의해서 의식을 하려는 부과된 요소이다. 관찰 행위는 우리들 자신을 이 같은 주된 힘으로 나가게 하는 단호한 행동이다—우리가 무엇을 하진, 최소한 우리가 그런 힘에 의해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에 기인하여, 일찌감치 은밀하게 항복을 하는 것 말이다. 우리가 귀환법에서 하는 그런 항복은 하나의 관념의 고집에 대한 항복이다. 가설은, 프랑스인들이 말하듯, 나 자신보다 강한 것이다 *c'est plus fort que moi*.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강제적이다. 지금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문을 열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5.581).

이 인용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사실의 인지이다. 즉 하나의 명제의 단언은 이 명제의 진리에 대한 발화자의 개인적 참여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확실성은 어디서 오는가? 판단 속에서 표현된 현실에 대한 동의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의 초기 논문들에

서부터 퍼스는 두 개의 관념을 연결하는 것은 가설적 성격에 속한다고 진술한다. 그것은 모든 비교를 가능케 하는 근원이다: “하나의 사고가 다른 사고와 유사하거나, 진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고를 표상한다는 지식이 직접적 지각으로부터 유도될 수 없고, 하나의 가설(물론 사실들에 의해서 충분히 규명될 수 있는)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아울러 그 같은 표상적 사고의 형성이 단순히 정신적 비교가 아닌, 의식 배후에 있는 실제적 힘에 종속된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2,228).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가추법에서 우리에게 가설을 부과하는 것은 모종의 본능적인 그 무엇이라는 점이다. 본능 그 자체는 가설들을 암시하는 데 있어서 과오적이지만 우리의 심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능을 맡는다. 본능은 종의 발달에서 획득된 원초적 능력이다.²⁶⁾

아울러 가추법은 지각적 지식의 영역을 포함한다. 가추법과 지각은 서로 중첩되어 있다. 퍼스는 이 둘 사이에 어떤 분할선을 긋는 것도 부질없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본능의 미덕이며, 가설의 무한성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을 막아주는 자연적 은총이다. 귀납법과 가추법 사이에 연속성이 있듯이, 과학적 추론의 근본적 명제들과 지각적 판단들 사이에도 연속성이 존재한다. 하나의 지각적 판단은 통제되지 않는 하나의 신속한 인지로서 지각 편린을 해석한다. 그것은 통찰의 섬광 *flash of insight* 과 유사하며, 섬광을 통해 하나의 가설이 과학자의 정신에 암시된다. 지각적 판단의 과정은 무의식적이어서 감각 데이터에 대한 해석은 지각 속에서 실제로 주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퍼스에 따르면 지각적 판단은 가추법적 판단의 “극단적 경우”이다(5.186).

26) 퍼스의 가추법에 나타나는 이성과 본능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저서를 참조할 것. William H. Davis, *Peirce's epistemology*,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72.

하지만 퍼스는 이 두 과정에 대한 선명한 구분을 남기지 않고 있다.

8. 결 론

가추법의 문제는 그것이 인간 탐구의 일반 경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보다 풍성해진 지식 이론을 요구한다. 아울러 가추법은 세미오시스의 추론적 본질을 부각시켜준다. 가추법은 또한 설명적 가설들을 정식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프래그머티시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프래그머티즘은 의미를 구비한 명제들과 무의미한 명제들을 판가름해주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이런 틀 속에서 프래그머티즘은, 퍼스 자신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가추법의 논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저 유명한 프래그머티즘의 준칙을 상기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즉 실험될 수 있는 가설들만이 실제적 효과들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²⁷⁾ 이 준칙은 우리들 개념들의 석명(釋明) 방법으로서 제시된다. 이 기준은 하나의 가설에 대해서 실제적 효과들을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이 기준은 상상력도 배제하지 않는다. 단 이때 상상력은 실제적인 효과들에 기초해야 한다. 잘라 말해, 이 기준은 선험적인 것, 다시 말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즉 과학적인 것이다. 이렇듯 퍼스의 프래그머티시즘은 가추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가추법에는 상이한 정도의 수준들이 있다. 가추법은 사고의 모든 현실에 적용된다. 그의 말년의 글에서 퍼스는 가추법적 추론이, 귀납법을 포함한 모든 종합적 형식들의 토

27) 이 준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책을 참조하라. Claudine Tiercelin, *C. S. Peirce et le pragmatism*, Paris: PUF, 1993, pp. 28~42.

대라고 진술했다. 그가 보기에 모든 해석적 활동들은 본질적으로 가추법적이다. 이렇듯 가추법은 과학적 활동의 모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예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예술이란 창조적 가추법으로부터 시작한다.²⁸⁾ 과학적 가추법이 어떤 비정상이나 놀라운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반면, 예술의 경우는 색다르다. 예술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이론들을 설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가는 모종의 결여감이라 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것은 곧 창조성의 잉태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술가는 하나의 개념적 문제에 대해서 가설이나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 그는 문제를 표현하면서 가설적 상태로 남아 있다. 과학자와 견주어 근본적인 차이는, 예술가가 적절한 표상을 수행하지 않는 반면, 그는 몸의 형성 *embodiment*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한다. 퍼스는 말한다: “미학은 그 목표가 느낌의 성질들을 형성하는 것들을 고려한다.” 반면 논리학의 대상은 “무엇인가를 표상하는 것들이다”(5.129).

과학과 예술의 유사함은, 예술적 가추법이 엄밀한 의미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식의 자유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예술가는 자신의 상상력과 관찰의 재능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자유를 향유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질적인 관찰들이 그의 고유한 상상력 속에서 마음껏 비상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 그러나 과학자와 달리 예술가는 실재의 존재나 부재 따위의 관점에 의해 제약받지 않는다. 예술을 의식 활동의 정수로 삼으면서 그는 예술의 일차성을 전범화한다. 요컨대 예술은 자유의 정상이자, 잠재성 그 자체이다.

28) 예술적 가추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Douglas R. Anderson, *Creativity and the Philosophy of C. S. Peirce*, Dordrecht/Boston/Lancaster: Martinus Nijhoff Publications, 1987.

참고 문헌

- C. Chauviré, "Peirce, le langage et l'action," *Les Etudes Philosophiques*, vol. 1, 1975, pp. 3~17.
- C. Chauviré, "Le 'pragmatic turn' de Ch. S. Peirce," in *Critique*, N. 449, 1984.
- Ch. Hookey, *Peirce*, Routledge and Kegan Paul, 1985.
- Cl. Tiercelin, *La pensée-signe*, Nîmes: Jacqueline Chambon, 1993.
- , *C. S. Peirce et le pragmatisme*, Paris: PUF, 1993.
- C. S. Peirce, *Collected Paper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1~1960.
- D. Savan, "La Sémiotique de Ch. S. Peirce," *Langages*, N. 58, 1980.
- G. Deledalle, "Qu'est-ce qu'un signe?" *Semiotica*, X, 4, 1974.
- , *Charles S. Peirce. Ecrits sur le signe, rassemblés, traduits et commentés*, Paris: Seuil, 1978.
- , *Théorie et pratique du signe*, Paris: Payot, 1979.
- , *Charles S. Peirce, Phénoménologie et sémioticie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987.
- J. Brock, "Peirce's Conception of Semiotic," *Semiotica*, 14: 2, 1975, p. 124~41.
- J. Buchler, *Peirce's Empiricism*, New York, 1939.
- J. Chenu, *Textes anticitésiens. Présentation et traduction*, Paris: Aubier, 1984.
- K. P. Apel, *Charles S. Peirce: From Pragmatism to Pragmaticism*,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1.
- N. Everaert-Desmedt, *Le Processus interprétatif (introduction à la sémiotique de Ch. S. Peirce)*, Liège: Mardaga.
- P. Wiener, F. Young, eds.,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Ch. S. Peir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2.

- R. Marty, "La Sémiotique phanéroscopique de Ch. S. Peirce," *Langages*, N. 58, 1980.
- T. Goudge, *The Thought of C. S. Peirc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0.
- T. Todorov, *Théories du symbole*, Paris: Seuil, 1978.
- U. Eco, *Sémiotique et philosophie du langage*, Paris: PUF, 1984.
- W. B. Gallie, *Peirce and Pragmatism*, New York: Dover, 1966.